

(본 내용은 일본어 원본을 토대로 FOI 사내 번역된 참고 자료입니다.)

2010년 5월 21일

< 파산법의 보전 관리 명령의 발령과 보전 관리인의 취임 인사.>

정중히 안내를 드립니다.

금일, 주식회사 FOI(이하 [채무자]라고 표기) 는, 동경지방법재판소에 파산 신청개시를 표명하여, 그 결과 동재판소로부터 보전관리명령을 받고(동경지방법재판소 2010년(가)제 8700호), 당직(当職)이 보전관리인의 선임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는 2009년 11월 20일에 東証マザーズ (Mothers)에 상장을 했습니다만, 상장신청시에 제출했던 유가증권제출서에 매상고를 과대하게 계산하는 등 허위의 결산정보를 기재하여, 100억엔 규모의 분식결산이 있었다고 하여 2010년 5월 12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용의로 증권거래등 감시 위원회로부터 강제조사(수사, 압류)를 받았습니다.

동월 18일에는 동경증권거래소로부터 정리유가증권에 지정되어, 동년 6월 19일에 상장폐지가 될 것이 결정 되었기에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채권이 동결되는 등, 회사의 실태는 큰폭의 채무초과등으로 부터 사업의 지속이 곤란한게 되어, 파산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직(当職)은, 금일로 부터 파산신청개신결정까지의 사이, 보전관리인으로서 채무자 자산전부의 관리처분권한을 가지며, 자산의 조사, 관리처분업무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임후,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에 의한 강제조사로 부터, 채무관계데이터를 포함 관계서류등 대부분의 전 자료가 압수 되었으므로 이후, 자료를 입수하여 조사를 진행 하겠지만, 채무자로부터의 연계자료에 의하면, 부채총액은 약 100억엔, 채권자수는 약 330명 (금융기관 18사, 사채권자 3사, 리스 채권자 3사, 근로 채권자 180명, 거래 채권자등 약 130사), 주주수는 약 1만 3000명 입니다.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상시 갱신할 예정이므로, 당직의 보전관리업무에 지속적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즈다 코우지 배상

동경치오타구마루노우치 2-2-2
마루노우치미즈이빌딩
지티유와법률사무소
주식회사 에프오아이
보전관리인 변호사 마즈다 코우지